

‘대역전극’ 광주 FC, 무더위 뱅~



광주 FC의 나상호가 지난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남 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서 헤딩슛을 시도하고 있다. 나상호는 2-1로 앞선 후반 42분 환상적인 돌파로 시즌 11호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광주 FC 제공>

K리그2 21R 성남 FC전 3-1...실점 뒤 안영규·김동현·나상호 연속 골 후반기 6경기 연속 무패 순위싸움 탄력... ‘MVP’ 나상호 AG 활약 기대

광주 FC의 뜨거운 기세가 선두 성남 FC까지 삼켰다. 광주가 지난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2018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서 3-1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후반기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K리그2 순위싸움의 다크호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전반 초반부터 광주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선제골은 오히려 성남의 몫이었다. 전반 16분 프리킥 상황에서 서보민이 직접 페널티 슈팅이 광주 골키퍼 윤영국 앞으로 향했다. 윤영국

이 공을 쳐 냈지만, 성남 최병찬이 튕겨 나온 공을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광주 골대를 갈았다. 하지만 달라진 광주의 힘이 ‘주장’ 안영규의 동점골과 함께 폭발했다. 전반 23분 ‘예비역’ 이음동의 원반에서 골이 시작됐다. 프리킥 찬스에서 이음동이 공을 띄웠고, 안영규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경기 흐름은 다시 광주로 기울었다. 김동현, 여봉훈이 전반 막바지에 성남 수비수들을 위협하면서 분위기를 달구었다. 그리고 후반 23분 이번에도 이음동이 득점 도우

미가 됐다.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수비수 두 명을 마주하고 있던 이음동이 왼발로 슬쩍 뒤로 공을 넘기면서 상대의 허를 찔렀다. 그리고 공을 받은 김동현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골대를 맞은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면서 광주가 역전에 성공했다. 짜릿한 역전극의 마지막 순간은 에이스 나상호가 장식했다. 후반 42분 광주 진영에서 성남의 공세를 막던 두 현석이 상대의 패스를 뺏어 나상호에게 공을 넘겼다. 상대 발을 맞은 공을 잡은 나상호는 하프라인에서부터 질주를 시작했다. 수비수 연계를 흔들린 나상호는 몸을 던진 골키퍼 김근배까지 피해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3-1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환상적인 질주로 시즌 11호골을 만든 나상호는

이날 경기의 수훈 선수로 선정됐다. 광주의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의 수훈 선수 역시 나상호다. 광주는 지난 1일 아산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6경기에서 3승 3무를 기록하고 있다. 극적인 순간마다 나상호가 있었다. 후반기 첫 승이었던 4일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3-0 승리를 이끌었고, 1-1 무승부가 기록됐던 15일 수원FC전에서는 경기 시작 2분도 채 안 돼 골을 넣었다. 또 21일 부천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종료 직전 ‘극장골’을 넣으면서 1-0 승리의 중심에 섰다. 뜨거운 기세로 후반기 K리그2 무대를 지휘한 나상호는 31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U-23 축구 대표팀에 소집, 한국의 대회 3연패를 겨냥한다. <김여울 기자 wool@

몸 푼 이강인·기성용

시즌 앞 친선경기 2경기 연속 출전

한국 축구의 기대주 이강인(17·발렌시아)이 프리시즌 1군 경기에 두 차례 연속 출전했다. 이강인은 2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슈타디온에서 열린 PSV 에인트호번과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팀이 1-2로 지고 있던 후반 26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강인은 지난 25일 로잔 스포르(스위스)와 프리시즌 경기 때 전반 23분 교체 출전하면서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유니폼을 입은 이후 7년 만에 1군 경기를 처음 경험했다. 이어 에인트호번과 친선전까지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2경기 연속 1군팀 경기에서 기량을 점검받았다. 발렌시아의 B팀인 메스티야 소속이 이강인은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탈 감독의 뜻에 따라 2018-2019시즌을 앞두고 1군 팀의 프리시즌 전지훈련에 참가했다. 1-2로 뒤진 후반 21분 발렌시아는 제프리 콘도그 비아를 빼고 이강인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교체 투입했다. 이강인은 날카로운 측면 돌파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공격포인트를 따내지는 못했다. 발렌시아는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패배를 맛봤다. 발렌시아는 한국시간으로 8월 2일과 4일에 각각 레스터시티, 에버턴과 영국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이어간다. 8월 10일에는 발렌시아로 돌아가 레바쿠벤(독일)과 대결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기성용(29)도 팀 합류 이후 프리시즌 경기에 연이어 출전했다. 기성용은 28일 포르투갈 포르투의 이스타디우 드 드라강에서 열린 FC포르투와의 친선경기에서 후반 17분 존조 셀비와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연합뉴스>

“카타르, 2022 월드컵 유치 경쟁국 여론조작 의심”

영 언론, 증언·이메일 공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가 유치과정에서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과 홍보회사 관계자를 동원해 경쟁국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더 선데이 타임스는 29일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카타르가 보낸 비밀 이메일을 공개하며 카타르가 부정행위 혐의로 월드컵 개최권을 따냈다고 폭로했다. 이 매체는 “카타르가 고용한 전직 CIA 요원과 홍보회사 관계자들은 월드컵 유치 경쟁국인 미국과 호주에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할 경우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라며 “특히 카타르의 사주를 받은 한 교수는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를 받고 왜곡된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월드컵 개최는 자국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카타르는 미국과 호주의 여론을 흔들기 위해 개최권을 따내려는 전략을 펼쳤다”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월드컵 유치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연합뉴스>

손흥민 LA 팬미팅 멕시코팬 우르르~

한인타운 방문...“독일전 골 고마워” 전통모자 선물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데일리 메일 등 영국 매체는 29일 “손흥민이 지난 28일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진행된 ‘깜짝 팬미팅’에 상당히 많은 멕시코 팬들이 몰려들었다”라며 “한 멕시코 팬은 멕시코 전통모자인 솜브레로를 선물로 줬다”라고 전했다.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독일전에서 쐬기 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2-0 대이변을 만들었고, 그 결과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며 “멕시코 팬들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 팀원들과 함께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

다. 그는 휴식일을 맞아 구단 관계자들과 함께 LA 한인타운을 찾았다. 손흥민은 현지 축구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 자리엔 적잖은 멕시코 팬들도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손흥민의 응원가를 부르기도 했다. 손흥민은 다음 달 1일 AC밀란과 ICC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영국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준비한다. 이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도네시아로 떠나 김학범호에 합류한다. 한편 손흥민은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 강호’ FC바르셀로나와 대결한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0-2로 끌려가던 후반 28분 손흥민의 추



토트넘 손흥민이 28일(현지시간) 미국 LA 한인타운을 깜짝 방문해 현지 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엔 적잖은 멕시코 팬들도 참석했다. <토트넘 페이스북 캡처>

격골을 넣었다. 팀은 후반 30분 터진 후반 30분 조르주 케빈의 동점골로 힘겹게 무승부를 이어왔다. 승부차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1번 키커로 나

서 깨끗하게 득점했지만 3번 키커로 나선 조르주가 실축하면서 5명 전원이 득점에 성공한 바르셀로나에 3-5로 패했다. <연합뉴스>

정현, 시티오픈 1회전 부전승

복미 하드코트 시리즈 대회에 출전 중인 정현(23위·한국체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ATP) 투어 시티오픈(총상금 189만165달러)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정현은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막하는 시티오픈에 단식 본선 8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넘긴 정현은 브누아 페르(52위·프랑스)-마르코스 바그다티스(95위·키프로스) 경기 승자와 16강 진출을 다툰다. 이 대회 톱 시드는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 2번 시드는 존 이스너(9위·미국)에게 각각 돌아갔다. 정현이 3회전에 진출하면 스티브 존슨(34위·미국), 알렉스 드 미나르(68위·호주), 바세크 포스피실(91위·캐나다) 가운데 한 명을 만나게 된다. <연합뉴스>